



임기영(왼쪽)과 임창용.

돌아온 '잠수함 듀오' KIA 1위 확정 속도낸다

임기영 성공적 복귀 이어 임창용 출전 채비... 선발·불펜에 큰 힘



돌아온 '잠수함 듀오'가 KIA 타이거즈의 매직넘버를 바꾼다. KIA의 1위 질주가 155일째 이어지고 있다. 한 번도 1위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최고고지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다. 아직도 지워야 할 매직넘버가 두 자릿수다. 마음 급한 KIA에 힘이 더해졌다. 흔들리던 마운드에 '두 잠수함'이 한 축을 구성

하게 됐다.

12일 SK 와이번스와의 원정 경기에 맞춰 '최고잠' 임창용이 돌아왔다. 임창용은 허리가 좋지 않아 지난 8월 28일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KIA는 지난 8일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김진우 등 6명을 대거 엔트리에서 말소했다. 그러나 1군에 5명만 콜업을 하면서 임창용의 복귀에 대비해 엔트리 한 자리를 비워두었다. 그리고 10일 피칭을 정상적으로 소화한 임창용이 12일 남은 한 자리에 이름을 올렸다.

임창용이 빠진 사이 KIA는 불펜 참사를 경험했다. 지난 3일 넥센 히어로즈와의 홈경기에서 9회 7실점의 끝내기 패를 기록

했던 KIA는 5일 LG 트윈스와의 원정 경기에서도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두 경기 연속 끝내기 패를 기록했다. 벤치의 매끄럽지 못했던 마운드 운영 속 위기에 취약한 올 시즌 KIA 불펜의 민낯을 다시 확인할 수 있던 순간이었다.

노련한 베테랑이 복귀하면서 아직은 경험이 부족한 김윤동과 긴박한 상황에서 많은 짐을 진 김세현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선발진에서는 '신예 잠수함' 임기영의 재출항이 반갑다.

임기영은 전반기 1위 독주의 수훈 선수다. 임기영은 선발대란 속 마운드 '셋발'로 등극하면서 전반기 14경기에서 1.72의 평

군지책점으로 두 번의 완봉승 포함 7승을 수확했다. 이 중 선발로 나온 11경기에서 73.1이닝을 소화해주면서 KIA 마운드에 큰 힘이 됐다.

그러나 페럼으로 한 달여를 쉬어간 뒤 임기영의 거침없던 질주에 제동이 걸렸다. 복귀 후 두 경기를 불펜에서 소화한 그는 7월 19일 넥센전을 통해 선발로 복귀했지만 5.2이닝 3실점으로 패전투수가 됐다. 이후 3차례 선발 등판 모두 5회를 넘기지 못하고 일찍 물러났다. 무더진 공이 난타를 당하면서 결국 지난 8월 9일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예상보다는 복귀에 시간이 걸렸다. 어깨가 좋지 않아서 재활 과정을 거치느라 임기영은 지난 8일야야 1군에 합류했다.

그리고 임기영은 우려의 시선을 뒤로하고 지난 9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홈경기에서

5이닝 1실점의 피칭을 하며 복귀전을 성공적으로 치렀다. 이날 불펜진의 난조로 승리투수가 되지는 못했지만 선발 싸움에서 좋은 역할을 해주며, 버나디나의 끝내기 안타를 환한 표정으로 지켜볼 수 있었다.

임기영은 "뭘 던져도 맞을 것 같고 생각이 너무 많았다. 팀에 너무 죄송했다. 2군에서 마음을 내려놓고 코치님, 선배들과 많은 이야기를 했다. 아무 생각 없이 이번 이닝만 막는다는 생각으로 했더니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내 승리에 대한 욕심은 없다. 끝날 때까지 아프지 않고 팀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다시 출발하는 각오를 밝혔다.

'두 잠수함'으로 선발과 불펜의 공백을 채운 KIA가 1위 고지를 향해 늦어졌던 걸음을 재촉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감 잡았는데... 선발 등판 감감 류현진 등판 또 미뤄져

감 잡은 '괴물 투수' 류현진(30·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선발 등판이 다시 한 번 밀릴 전망이다.

MLB닷컴 켄 거니 기사는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류현진이 13일 4이닝 시뮬레이션 게임에 등판할 예정이다. 16~18일 워싱턴 내셔널스 3연전은 알렉스 우드, 리치 힐, 마에다 겐타가 선발 등판한다"고 전했다.

당초 12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방문경기에 선발 등판할 예정이었던 류현진은 "내년을 위해 휴식이 필요하다"는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의 말과 함께 로테이션에서 빠졌다.

후반기 8경기에서 2승 1패 평균자책점 2.60으로 호투하던 류현진의 선발 제외는 미국 현지에서도 많은 뒷말을 낳았다.

현지 언론은 류현진이 워싱턴 방문 3연전 가운데 하루 등판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13일 4이닝짜리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선발 등판을 대체하게 되면서 마운드 복귀는 더욱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류현진은 시뮬레이션 게임 이후 5일을 쉬고 가정하며, 19일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방문경기에 선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19일 필라델피아전부터 13경기만 다저스는 정규시즌 일정을 마친다. 선발 로테이션대로라면 류현진은 최대 3경기에 추가로 등판할 수 있다.

그러나 원치 않아 운영 중인 다저스 선발 로테이션을 고려하면 1경기 등판마저 장담할 수 없다.

/연합뉴스

사드 때문?

현대차, 中 여자골프 후원 중단

현대자동차가 7년간 해오던 중국 여자골프 대회 후원을 중단한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갈등으로 최근 중국 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현대차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최한 중국여자오픈(Hyundai China Ladies Open)의 타이틀 스폰서를 올해부터 하지 않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12월에 열리는 중국여자오픈은 중국 여자프로골프협회(CLPGA)가 주관하는 가장 큰 대회 중 하나다.

2006년부터는 한국 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와 공동 개최해 왔는데, 2010년부터 현대차가 메인 스폰서로 들어오면서 '현대차 중국여자오픈'이 됐다. 이에 KLPGA 투어의 정규대회 중 하나로 포함돼 중국 선수들뿐만 아니라 KLPGA 선수들도 대거 참여했다. 김효주가 지난해를 포함해 3차례 우승을 차지했다.

현대차 측은 "올해부터는 후원하지 않기로 했다"며 "지난해에 계약이 끝난 데 따른 것으로 사드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지만 골프계 안팎에서는 현대차의 이같은 방침이 최근의 경제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KLPGA 한 관계자는 "(현대차 측이) 왜 안 한다는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며 "단지 현대차가 중국에서 최근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가 타이틀 스폰서에서 빠지지만, 대회는 예정대로 치러진다.

/연합뉴스

“‘코리언슬램’ 달성한다”

LPGA 예비양 오늘 개막

한국(계), 시즌 메이저 4승

유소연·박성현 우승 후보

전인지 타이틀 방어 나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시즌 다섯번째 메이저대회 예비양 챔피언십이 오는 14일(한국시간) 오후 프랑크 에비앙 레 뱅의 에비앙 리조트골프클럽(파71)에서 개막한다.

예비양챔피언십은 한국 선수와 인연이 깊다.

메이저 승적 전에는 신지애와 박인비가 정상에 올랐다. 메이저대회가 된 이후에도 2014년 '천재소녀' 김효주가 화려하게 LPGA투어에 등장한 무대였고 작년에는 전인지와 박성현이 우승과 준우승을 나눠 갔다. 메이저대회 승적 이후 4차례 대회에 한국 선수가 두 번 우승했고 2015년에는 동포 선수 리디아 고(뉴질랜드)가 정상에 올랐다.

올해 대회 관련 포인트는 '코리언슬램' 달성 여부다.

이번 시즌 치러진 LPGA투어 메이저대회에서 한국 선수는 3차례 우승했다. 예비양챔피언십마저 우승하면 연간 4개 메이저대회를 한국 선수가 우승하는 진기록을 세운다.

KPMG 여자 PGA챔피언십 우승자 다니엘 강(미국)이 한국에서 태어난 교포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5개 메이저대회를 모조리 한국 및 출신 선수가 싸울이

는 전례없는 일이 벌어질 판이다.

지금까지 한국 선수가 연간 메이저대회를 3차례 우승한 적은 3차례 있었지만 4개 석권은 없었다.

시즌 첫 메이저대회 ANA 인스퍼레이션 챔피언 유소연과 US여자오픈 우승자인 박성현은 전문가들이 꼽는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다. 상금왕과 다승왕, 세계랭킹 1위를 놓고 뜨겁게 경쟁하는 둘은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 예비양챔피언십 우승 트로피를 양보할 수 없다. 세계랭킹에서는 유소연이 1위에 올라 박성현(2위)에 앞섰지만 상금순위에서는 박성현(1위)이 유소연(2위)을 추월했다.

다만 유소연 아칸소 챔피언십 우승 이후 최근 6개 대회에서 US여자오픈 3위 말고는 10위 이내 입상이 없었지만 박성현은 최근 4차례 대회에서 두차례 우승을 포함해 세 차례나 톱10에 이름을 올리는 상승세다.

박성현은 캐나다여자오픈 우승 이후 2개 대회를 건너뛰면서 예비양챔피언십을 준비했다. 박성현이 각별한 정성을 기울이는 것은 지난해 준우승을 설욕 하려는 의욕에서다. 박성현은 지난해 이 대회에서 최종 라운드 맞대결을 펼친 전인지에 4타차 완패를 당했다.

생애 첫 타이틀 방어에 나서는 전인지도 기대가 크다. 전인지는 지난해 이 대회에 앞서 LPGA투어에서 준우승만 세 번 했다. 이 대회 우승으로 우승 갈증과 준우승 징크스를 시원하게 벗어던졌던 좋은 추억이 있다. 올해도 우승 없이 5차례 준우승의 뒷에 걸린 전 인지는 대회 2연패와 시즌 첫 우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 사냥에 나선다.

/연합뉴스

“투어 챔피언십 티켓 잡는다”

PGA PO 3차전 개막

페덱스컵 포인트 70위권 출전

30위까지만 투어 챔피언십 자격

나상욱·김시우·강성훈 등 도전

지난해 10월 개막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2016-2017시즌이 이제 2개 대회만을 남기고 있다.

이미 많은 선수가 시즌을 마감한 가운데 페덱스컵 포인트 상위 70명만 출전할 수 있는 플레이오프 3차전 BMW 챔피언십(총상금 875만 달러)이 14일 미국 일리노이주 레이크 포리스트의 콘웨이 팜스 골프클럽(파71·7198야드)에서 막을 올린다.

이 대회는 플레이오프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다.

투어 챔피언십에는 페덱스컵 포인트 상위 30명만 나갈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페덱스컵 순위 30위 밖에 있는 선수들은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30위 안쪽으로 진입해야 한다.

시즌 최종전으로 열리는 투어 챔피언십 출전은 큰 의미가 있다.

우선 투어 챔피언십까지 나가면 다음 시즌 4대 메이저 대회 출전 자격을 확보할 수 있다. 또 BMW 챔피언십을 마친 뒤 페덱스컵 포인트 상위 30명을 주력 페덱스컵 포인트를 재조정하기 때문에 페덱스컵 우승자에게 주는 보너스 1000만 달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현재 페덱스컵 1위는 조던 스피스, 2위 저스틴 토마스(이상 미국)가 기록 중이다. 그러나 스피스가 571점, 토마스는 544점으로 둘의 차이가 27점에 불과하다. 3위 더스틴 존슨(미국)도 4650점을 기록 중이라 BMW 챔피언십 우승자에게 주는 페덱스컵 포인트 2000점을 추가하면 이 대회를 마친 뒤 1위로 올라설 수 있다.

플레이오프 시작 전까지 1위였던 마쓰야마 히데키(일본)는 3021점으로 4위다. BMW 챔피언십이 끝난 뒤 페덱스컵 포인트 상위 5명은 투어 챔피언십을 제패할 경우 자격으로 페덱스컵 우승을 차지할 수 있어서 5위권 싸움도 이번 대회의 관전 포인트다.

그러나 역시 다음 대회인 투어 챔피언십 진출이 걸린 '30위 커트 라인' 경쟁이 더욱 절실하다. 특히 한국 선수들이나 교포 선수들은 모두 30위 밖에 있어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야 플레이오프 최종전에 나갈 수 있다.

재미동포 케빈 나가 40위, 김시우가 45위에 올라 있으며 강성훈은 52위다. 재미동포 제임스 한이 64위, 뉴질랜드 교포 대니 리는 69위에서 30위권 진입에 도전한다. 교포 선수를 포함한 한국 선수가 투어 챔피언십에 한 명도 출전하지 못한 것은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제도가 도입된 2007년 이후 2013년이 유일하다.

지난해 페덱스컵 챔피언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도 51위에 머물러 비상이 걸렸고, 올해 마스터스 우승자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 34위, 베테랑 필 미켈슨(미국)도 36위로 순위를 더 올려야 투어 챔피언십에 나갈 수 있다.

/연합뉴스